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믿기에
인간의 경험을 근거로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온 명분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최 혼자 잘난 것처럼 하지
않고 함께한 형제를 돌아보며
변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삶에 대한 소회

신윤식

짧은 세월이 아닌데
언제 그 길을 걸어 왔는지
아쉬운 시간들 저쪽
그리고 상념의 층계들

뜨겁던 청춘 시절도 있었고
젊음의 꽃이라는 낭만도 있었는데
어느새 그 시절 지나고 나니
꿈은 시든 꽃잎으로 날리고
세월가는대로 묻혀가는 인간사일 뿐

명멸하는 기억 속에
지나온 자취들은 희미해지는데
가슴 깊이 무엇을 묻어두면
철었던 마음들 돌아와
눈 떠지는 슬기로움으로 돌아날까

세월이 더할수록 배우는 지혜
깨닫는 도리와 누리는 부요
이제는 생명을 향해 가는 이 길이니
제 나름대로의 삶을 지키며
그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8.19

발행호수 제20권 34호

중은 게 좋다 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일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자는 의미로 반

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썩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이 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꺼려합니다. 인간관계도 자신과 연관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유불리(有不利)'를 따져서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나 타협하며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닌데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대충과 타협을 따라 편하고 유리한 길을 선호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과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식일 논쟁의 불씨가 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밭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굳이 안식일에 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집해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고 해도 아사 직전이 아닌 상황에서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굳이 안식일에 행할 만큼 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 마른 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식일 다음날 고쳐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전 9: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주일오전설교
눅 6:1-11

안식일 문제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바울도 율법의 규례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타협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에 자유한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울처럼 행동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관계를 악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충돌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방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주일성수를 신앙의 중요한 실천으로 고집하는 사람 앞에서 주일 성수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로 주일 성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충돌하고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문이 충돌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된 바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한 분명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사람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충돌하고 싸워야 마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신자인 것처럼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세계와 예수님이 나타내신 세계, 이 두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과 충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신 것은 바리새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 주시며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 바리새인을 도구로 삼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율법과 충돌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복음이며 복음이 곧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본래적 기능이 법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신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적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은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곧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돌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누리고 성실하게 율법을 실천한 것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삼아 종교적 자존심을 굳건히 세워가는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면적 행위를 따라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질서에 무조건 도전하시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은 유대교의 체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체제로 들어가 진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자기들의 체제 자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 거부를 당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전통적인 체제가 그들의 굳은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체제를 반대하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에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세련된 종교 체제와 상식에 머문 채 그것을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종교 체제를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체제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을 같은 편으로 인정하고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체제를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보다는 자신의 종교 세계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죽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가 고파도 이삭을 비벼먹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선과 악의 문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문제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과 생명을 담아서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즉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드러내고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연관된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자유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에 포로된 자요 눌린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를 생명과 자유의 문제와 결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생명과 자유가 아닌 안식일이라는 그들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생명과 자유의 문제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새 교훈입니다. 새 교훈은 유대인의 전통인 율법적 체제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묵은 것이 좋다 하며 새 것을 거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한 것만큼 자신의 가치가 향상되고 우월한 자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 교훈은 오로지 생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구분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의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우리의 행함의 여부로 인해 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한 십자가의 피가 하늘의 의가 되어 우리를 덮고 있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세계에서 인간의 전통이나 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체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은혜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안식일은 분명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인간의 전통이나 체제의 문제로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이야 말로 생명과 진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직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만 의로운 자로 여김 받을 뿐이기에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오 늘 우리가 시편 80편을 읽었지만 80편을 포함해서 성경 전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드는 법이라든가,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심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고백에는 그다지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흔하디흔한 간증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80편의 내용이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80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것도, 설교를 위해서이지 이 내용에 귀가 솔깃하게 되었다거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80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곧 말씀의 역사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80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역사의 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주일오후설교

시 80:1-19

주의 얼굴 빛

(84장 7.29일 설교)

말이고, 2절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라는 말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라고 말하는 것과, 7절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라는 말, 19절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80편의 저자인 아삽은 주의 얼굴빛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얼굴빛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80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삽이 무엇을 주의 얼굴빛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주의 얼굴빛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 주의 얼굴 빛,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는 것을 말하면서 ‘구원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주의 빛이 비추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삽은 주의 얼굴빛에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같은 주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주의 얼굴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얼굴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방식 그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이라는 말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서 어떤 빛이 비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얼굴빛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통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계시적 의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을 주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얼굴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삽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건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3절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 속의 뗏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는 말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야방인으로 인해서 큰 곤경에 처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아삽은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는 말로써 모든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되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뭇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삽이 비록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하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신 사건입니다.

아삽에게는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던 주의 얼굴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6절의 내용도 자신이 처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형편에서도 오직 주의 얼굴빛만 비추면 된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얼굴빛이 무엇이기에 오직 거기에만 집중 할까요? 1절을 보면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라고 말합니다.

출 25:20절의 **“그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는 구절을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는 언약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로부터 비추지는 빛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인한 죄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주의 얼굴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14-15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삽이 환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근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백성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자는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자비하심과 긍휼로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경험이며 주의 얼굴빛이 그 마음에 비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빛이 그 마음에 비취 신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비하심과 긍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신 양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현대 기독교에서 거의 상식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이러한 상식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혼란

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에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았다고 자부할만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자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온 세계에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은 것을 두고 재앙이라며 자신을 왜 그런 사람으로 낳았는지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원망이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로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두고 재앙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전하라

수요일설교

렘 15:10-21

하나님의 구원

(42장 7.25일 설교)

고 하신 말씀 그대로 유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 가감 없이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라는 말을 보면 아마 선지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저주하며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를 않았습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라는 말을 보면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한 발미를 제공한 적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선지자를 왜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유다가 당할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지 심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당할 철저한 멸망과 비참한 상황에 대해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에 유다 백성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상황으로 밀어 붙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으로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갈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저주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어떤 현실이 자신이 덮쳐 올 것인가를 예견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의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중심에는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살아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자신이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설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 능력이 증명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심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욕과 저주의 상황이 주어질 때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며 원수로 하여금 재앙과 환난의 때에 선지자에게 간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선지자가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선지자를 향한 비방도 멈추고 오히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다음에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3,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까지 유다의 환난에 집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역시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죄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철거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 죄의 울타리 안에서 심판을 받을 자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는 억울하지 않습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행함과 선에 가치를 둔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복은,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경고하고 경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복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말씀을 얻어먹는 것이고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오전예배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장
 교 독 : 57(시130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285장
 성 경 : 눅 6:1-11
 말 씀 : 안식일 문제(2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6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오후예배

3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91장
 기 도 : 최두임 집사
 찬 송 : 255장
 성 경 : 시 83:1-18
 말 씀 : 침묵하지 마소서(8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97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수요예배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45강)

교회소식

- 연로하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박위선 권사님과 유숙희 할머니,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하신 박신자 사모님과 한옥섭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김옥분 집사

중국 방문기②

내 아이폰드는 3G, 와이파이 겸용이어서 로밍만 되면 인터넷이 가능한데 휴대폰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있었다.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자 속도가 조금 느린 탓인지 서서히 은석교회 메인 화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을 저장해 놓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이성희 장로님이 촬영한 교회 전경을 찾아 터치를 하자 종탑까지 촬영된 교회 모습이 아이폰드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다. 전도사님께 은석교회 예배당 전경을 보여드리고 내친 김에 목사님 모친과 동생 가족의 사진까지 찾아서 은석교회에 출석하신다며 보여드렸다.

이때까지는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타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로밍 요금의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휴대폰으로 이미 안내 문자를 받은 터라 통화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내 아이폰드는 국내통신사와 2기기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계약된 요금제인지라(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사진 몇 장 다운 받는다고 2기가 용량을 초과하진 않겠지' 라는 안일하고 무지한 생각이 내 발단을 짚게 된 것이다.

내친 김에 성탄절 행사 사진까지 한 장 보여드리고 다른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몇 번 더 시도해도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홈페이지를 종료한 후 방금 사용한 통신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해 보려고(사용한 통신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음) 국내 통신회사에 접속을 해보는데 역시 불통이다. 할 수 없이 '데이터가 2기기로 계약되어 있으니까 요금이 따로 나오는 것은 없을 거야' 라고 여전히 세상모르는 생각에 빠진 채 그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 나중에 집에 돌아온 후에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일이 생각나서 요금을 확인하자 데이터 통화료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종료 하려고 하는데, 저 밑에 길게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99,999원이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게 뭐지' 확인을 하니 숫자 옆에 '로밍서비스이용료' 라고 적혀 있다. 전장, 사진 3장 본 대가가 99,999원이었던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확인을 해보니 해외 로밍 사용은 국내 통신사와의 데이터 계약과는 별도로 요금이 청구된단다. 그것도 그나마 해외에서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요금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로밍 사용료를 월 10만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했기 때문에 99,999원이지 만약 상한제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인터넷을 더 사용했을 것이고, 요금은 몇 십 만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사용 도중에 인터넷이 불통 된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살면서 정부의 정책에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다니 역시 사람은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내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8시인 관계로 그만 쉬기로 하고 그렇게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사모님이 준비하신 재첩 국으로 아침을 먹고 가방을 정리해 놓고 마지막으로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공부에 참석했던 청년 셋이 들어온다. 한국에 들어갈 사모님의 짐이 많아서 버스 타는 곳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사모님과 우리들 가방은 모두 전도사님 차에 싣고 청년 셋은 그 차를 타고 사모님과 우리는 택시를 타기로 했다. 자매와 작별 인사를 하고 큰 도로로 나가서 택시를 타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포니를 연상하게 하는 낡은 소형차였다.